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마음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보여요’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초청법회 열어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회장 성낙진)는 환우와 보호자, 교직원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6일 17시 30분 5층 대강당에서 정목 스님(정각사 주지)을 초청하여 법회를 개최했다. 정목스님은 본인 저서인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에서 이야기한 느낌은 속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비교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법문을 시작했다. 이어서 달팽이의 네 가지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강조했다. ▲달팽이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산다.(우리도 각자의 삶에 충실하자) ▲달팽이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저항하지 않는다.(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달팽이는 느리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다.(태풍 같은 고통에도 전진하는 지혜를 갖자) ▲달팽이는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다.(인간 스스로 정화능력을 키우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더 이해하는 사람’, ‘모두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자고 전하면서, 힘든 나날이 있더라도 나를 키우고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목스님은 1976년 출가한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구니스님 1위, 한국 미래를 이끌 영웅(불교 부문)에 선정되는 등 한국불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02 대한소화기암학회 학술 집담회 개최

7월 11일 ‘제15회 대한소화기암학회 학술 집담회’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 집담회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정현 전공의는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을 대표하여 “GIST with Intravascular Lymphoma”의 주제를 발표했다. 대한소화기암학회 학술 집담회는 매년 3차에 걸쳐 각 지역의 대표 병원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 학술대회는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에 이어 본원에서 2차로 개최되었다. 본원에서는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가 홍보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준규 교수는 국제협력위원회 간사, 강현우 교수는 대장암 항암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화기암의 질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대한소화기암학회 학술 집담회는 다양한 증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03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법주사 승가의료봉사 다녀와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성낙진)는 지도법사 증취 스님,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 소화기내과 강현우 교수, 내과 최승현 전공의, 한방침구과 이승덕 교수 및 연우회 회원 약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19일 법주사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이번 봉사는 지난 5월 춘계사찰 순례를 다녀온 후 병원과 사찰 간 더욱 돈독한 인연을 이어가고자 이루어졌다. 특히, 하안거 수행기간 동안 스님들이 더욱 더 용맹정진 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예전 의료봉사보다 더욱 높은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법주사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스님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에 춘계사찰순례에서 느끼지 못한 법주사의 1500년 향기와 불교 역사를 탐방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보냈다. 연우회는 앞으로도 의료 및 노력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04 지역 협력 병·의원 방문

진료협력센터(센터장 백용해)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본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총 15곳의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방문했다. 백용해 센터장과 담당 간호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 의뢰 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료의뢰란 환자에게는 적절한 진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병원은 중증도의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시스템 중 하나이다. 진료협력센터는 앞으로도 지역병·의원과 효과적이고 정확한 진료의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05 ‘입원진료비 중간계산서 발행 무료 SMS(D-SMS)’ 실시

원무팀은 7월 초 워크숍에서 논의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입원진료비 중간계산서 발행 문자서비스(이하 D-SMS)’를 7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주 화요일 오후 원무팀 직원으로부터 중간계산서를 받고 나서야 발행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D-SMS를 통하여 본인의 진료비 내역 발행 사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D-SMS를 받기 위해서는 입원수속 시 문자 받을 분의 연락처를 등록하거나, 입원 후 외래 수납창구를 방문하여 D-SMS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06 인공신장실, 환경개선공사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인공신장실 내 투석실의 TV 노후화와 부족으로 인한 투석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브라운관 TV를 LED TV로 전부 교체했다. 이번에 TV를 교체함에 따라 투석실 환우들은 개별 설치된 TV를 시청하면서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원은 앞으로도 병원의 노후화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알 리 미

자세프로그램 학부모 간담회

일시: 7월 25일(금) 10시~11시 | 장소: 풍동초등학교 보건교육실 | 강사: 재활의학과 남기연 교수

